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9년 7월 15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법무부 앞(정부과천종합청사)

(오는 방법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7~8번 출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채화(다섬연합회 회장),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 규탄 발언 : 로시(필리핀, 다문화가정 안산시)

연유진(캄보디아,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왕그나(중국, 情만천하 이주여성연합회)

정차니다(태국,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최윤성(베트남, 주한베트남교민회)

◇ 자유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법무부 면담과 의견서 제출

■ 공동주최 :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다문화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 향한이주MAP,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다섬연합회,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두레방, 두레방외국

인여성지원시설, 사단법인 경기도 다문화가족협회, 생각나무BB센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함께하는 공동체, 남양주살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살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여성유권자연맹,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재한베트남문화관, 재한중국여성연합,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주한베트남교민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el 02-3672-8988 / Email: wmigrant@wmigrant.org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5월 11일 전북 익산시장인 정현율의 ‘잡종’발언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으로 함께해온 결혼이주민들의 분노가 지속되고 있다. 비단 정 시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특정 종교를 저격하여 ‘이슬람 아웃을 주장한 기독교자유당, ‘가짜 난민’을 운운하며 난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 수많은 정치인들,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의 발언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의 인종차별적 혐오발언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현재의 법은, 이러한 정치인들과 특정 단체들의 인종차별적 혐오발언이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심지어는 공적인 장소에서까지 회자되며, 영상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고, 이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로써 피해를 가중하고 있는 현 사태를 제재하지도, 작게는 방송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15차, 16차, 17차, 18차, 제 19차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사회적 분노를 야기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초기로부터 나아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간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폭력 속에서의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우울증 끝에 자살에 이르렀으며, 심지어는 남편의 폭력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문제는 단지 눈에 보이는 증거만이 남편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어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학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 또한 심각한 폭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여성들은 이혼 후 체류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폭력피해자인 이주여성들조차도 체류자격을 보장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폭력피해에 이주여성들이 자주 노출되는 이유는 가족 결합권뿐만 아니라 가족초청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출입국관리법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지 못하기에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을 가족이 없는 고립된 상태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편의 폭력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야기한다. 만약 결혼이주민들의 가족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하여 함께 머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면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길 것이다.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젠더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체류가능성에 대해 권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혼인관계 종료 사유, 자녀양육 여부, 한국인 배우자 가족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정치인들의 인종차별적 혐오발언을 금지하고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요구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들의 폭력피해의 예방과 이에 적절한 조치를 위한 체류자격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및 정책 변화 요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항의서한

정치인 및 특정 집단의 이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적 혐오발언과 출입국관리법상에 제도화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체류자격의 문제들이 지금의 한국사회를 공존이 아닌 배제, 통합이 아닌 분열로 향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인 정의의 부재와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폭력 피해가 그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 종속적인 부부관계를 만들어내는 체류자격의 차별적 제도화 및 인식의 문제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출입국법의 적극적인 보완 및 개정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을 고립과 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결합권 인정과 가족초청의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자유로운 방문과 체류를 허용하는 체류자격의 보완 및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불거지자 오히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봉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신원보증제를 폐지하였고, 귀화 신청이나 취소는 본인만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의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동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귀화 시 자녀의 유무가 귀화 신청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귀화의 요건인 품행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같은 기준들은 자의적인 심사가 가능한 구조이며, 생계유지 능력이라는 것이 실상 재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은폐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주여성들을 남편에 종속된 존재로 만들고, 출입국의 귀화심사관들로 하여금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귀화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지난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인종차별과 혐오발언을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하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으로 제도화된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에 대한 규정을 유엔이 권고한 바에 따라 개정하라!

하나, 결혼이주민이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폭력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가족초청과 가족 결합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

하나, 젠더 폭력에 기반한 폭력피해 여성들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의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하나, 출입국사무소 현장에서 요구되는 배우자 동의를 금지하고, 귀화 시 심사 요건을 재검토하여 자의적 심사를 막을 방안을 세우라!

2019년 7월 15일

기자회견 및 집회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화성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다문화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프,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다섬연합회,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사단법인 경기도 다문화가족협회, 생각나무BB센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함께하는 공동체, 남양주살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살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여성유권자연맹,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재한베트남문화관, 재한중국여성연합,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주한베트남교민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